

# 주 일 예 배 순 서

2019년 7월 21일

오전 11시

|        |                                      |
|--------|--------------------------------------|
| *송영    | 13장(Opening Song)                    |
| *신앙고백  | 사도신경(Apostles' Creed)                |
| 경배와 찬양 | 다같이(Praise & Worship)                |
| 합심기도   | 다같이(United Corporate Prayer)         |
| 대표기도   | 노은실 집사(Lead Prayer)                  |
| 교회소식   | 사회자(Announcements)                   |
| 봉헌     | 봉헌송 489장(Tithes & Offering)          |
| 봉헌기도   | 사회자 (Offertory Prayer)               |
| 영어 설교  | Sermon in English (Rev. Stephen Lee) |
| 성경봉독   | 로마서 1장18-23절 (Rom. 1:16-17)          |
| 설교     | 버림받은 세상의 소망 (이봉하 목사)                 |
| *송영    | 사랑의 종소리(Closing Song)                |
| *축도    | 이봉하 목사(Benediction)                  |

## 주일에 섬기는 분들 People Who Serve on Sundays

|           | 7월(July)          | 8월(August)    |
|-----------|-------------------|---------------|
| 헌 금 위 원   | 허지영 집사 김창희 집사     | 김수홍 집사 백종희 권사 |
| 안 내 위 원   | 김경희 권사 김숙희 집사     | 김경희 권사 김숙희 집사 |
| 대 표 기 도   | 이번주: 노은실 집사       | 다음주: 허지영 집사   |
| 이 번 주 친 교 | 준비: 남병숙 권사 고 은 집사 | 기도: 고경희 권사    |
| 다 음 주 친 교 | 준비: 김가등 성도 김영순 성도 | 기도: 김창웅 집사    |
| 이 번 주 헌 화 | 헌화: 마이클 마네아       | 꽃꽂이: 허지영 집사   |
| 다 음 주 헌 화 | 헌화: 데이빗 마네아       | 꽃꽂이: 허지영 집사   |

행진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부터 한 마리 두 마리 씩 행진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탈수 현상과 굶주림 때문에 지쳐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단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양식과 수분이 충분이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걸 같이 앞에 가는 놈(?)들에게 뒤질 새라 뒤에서 밀고 오는 놈들에게 밀릴 새라 행진을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고개만 돌렸더라면, 잠시 멈추고 몇 걸음만 옮겼더라면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줄 양식이 있음을 아랑곳 하지 않고 그렇게 행진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하나 둘 씩 그리고 모두가 죽어간 것입니다. 그것을 관찰하던 장 앙리 파브르는 그 모든 애벌레들의 슬픈 죽음을 보면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Processionary Caterpillar'(행진하는 애벌레).

용인 공원묘지 언덕에서 끝없이 밀려오는 장례 행렬을 연상하며 장 앙리 파브르의 행진하는 애벌레가 떠오른 것은 우리 인간이 한 평생을 살아가는 여정이 행진하는 애벌레들의 끝없는 행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무엇인가 매어달려 쫓기듯 삶을 영위해 가지만 정작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길을 외면한 채 단지 남보다 앞서가고 남보다 더 소유하기 위한 욕심에 사로잡혀 다람쥐 쳄바퀴 돌 듯 주어진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겨운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것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의 삶에서 어쩌면 더 두드러진 현상일 것입니다.

내가 아는 H 집사님은 한 때 흑인 최다 밀집 지역인 오클랜드에서 편의점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생활력이 강하고 의지가 강한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난데없이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 강도는 총구를 H 집사님 가슴에 겨누며 돈을 내어 놓으라 호통을 쳤습니다. 집사님은 알았다고, 돈을 꺼내겠다고 하면서 금고를 열더니 돈이 아닌 총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을 삼시간에 강도의 이마에 들이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호통 쳤습니다. “야, 너랑 나랑 동시에 쏘는 거다. 너는 내 가슴을 나는 네 대가리(?)를 쏜다. 네 생각엔 둘 중에 누가 살 찬스가 있겠니? 넌 이놈아 100센트 죽는 거야. 이, XX야!” 이 소리를 듣자마자 강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의 바지가랑이가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 계속 -

**우리교회 핵심 가치 및 사역 Core Values & Ministries**

아름다운교회는 예배, 선교, 양육, 섬김의 공동체로서 열방에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We exist to make Christ-like disciples in the nations.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 담임목사: 이봉하 순회목사: 한순진 안수집사: 함진욱
- 반 주: 권새미 김창희 찬양팀장: 김정민
- 경배찬양: 김정민 김기무 김미란 허지영 김창희  
노은실 오병국 양해성 고영민
- 주일학교: 한신옥 이조앤 백종희 김다인 이보람
- 학 생 부: 한신옥 김다훈 청 년 부: 오병국
- 믿음목장: 김기무 김창희 소망목장: 함진욱 이봉하
- 사랑목장: 김미란 노은실 은혜목장: 고광원 고경희 화평목장: 백종희
- 비전목장: 이봉하 이조앤 EM 목장: 마네아 드림목장: 한신옥 이보람
- 난타사역: 한신옥 음향영상: 오병국 양해성 김정민 고 은 김다인

**2019년 7월 21일**

금년도 표어

**형통케 하소서!**

(시편 118편 25절)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  
511 S. Loara St. Anaheim, CA 92802 (714)719-9338

# 아름다운교회

ANAHEIM BEAUTIFUL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담임 : 이 봉 하 목사 Stephen Lee, Pastor

## 고국 방문을 마치고(3)

이봉하 목사

### 변창하는 공원묘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지체된 시간에 그리 낯설지 않은 용인 공원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부친의 묘소가 고향에서 가까운 시골 마을에 안치되어 있었지만 용인에 모신 어머니 시신과 합장을 원하는 모든 가족의 숙원을 따라 몇 년 전에 두 분을 함께 모셨고 그래서 온 가족은 용인 공원에서 두 분을 함께 추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원묘지에 들어서면서 새롭게 느끼는 것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환경이 더 깨끗해졌고 잘 정돈되어 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전보다 훨씬 더 크게 확장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일 이 공원의 주인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는 야베스의 기도를 알고 그 기도를 드린 사람이라면 그 기도응답은 확실히 받은 것이구만...” 하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뇌리에 스쳐갔습니다.

아무튼 장례 사업과 공원묘지 사업은 불경기가 없을 것이 확실한 것이 사람들의 백화점 출입은 경기를 타지만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은 불황도 호황도 어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넓디넓은 용인 공원묘지의 언덕 위에 서서 수많은 무덤과 비석을 바라보며 떠오른 장면은 행진하는 애벌레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인 곤충학자로 회자되고 있는 장양리 파브르(John Henry Fabre)가 하루는 시험적으로 애벌레 여러 마리를 채집하여 화분 받침 바닥에 놓았습니다. 잠시 후 애벌레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줄을 지어 화분 받침 가장자리를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 두 시간 그리고 하루 종일 그들은 쉬지 않고 행진했습니다. 장 양리 파브르는 그들을 위해 그들이 좋아하는 영양 만점 수분 가득한 솔잎을 한 줌 따다가 그 화분 받침 가운데 놓았습니다. 애벌레들이 먹고 수분과 영양분을 섭취하도록 말이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단 한 마리도 그 솔잎에 눈을 돌리지 않고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처음처럼 그렇게 줄을 지어

### 1 기원 Greetings

오늘 귀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2 수양회 Encounter/PK Retreat/Children's Camp

이번 주말(7월26-27일)에 빅베어에 소재한 수양관에서 본교회 어린이 가족 여름 캠프가 열립니다. (주소: 601 Knight Ave., Big Bear Lake, CA 92315, 준비물: 타올, 세면도구, 긴소매 옷 등)

### 3 이번 주 다음 주 성구 Bible Memory Verse

이번 주와 다음 주 성구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립보서4:6)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립보서4:7)입니다.

### 4 강단사역 일정 Pulpit planning

이달에 시작된 ‘로마서 강해’가 올해 후반기에 계속됩니다. 오는 9월까지 “믿음으로 살기”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 “은혜로 살기” 시리즈가 이어지겠습니다.

### 5 금요 집회/토요 조찬 기도회 Weekend Meetings

이번주 금요 집회와 토요 조찬 기도회는 어린이 가족 캠프 관계로 쉽니다.

### 6 수요일 성경 공부 Wednesday Bible Study

오는 8월 첫 주부터 “모세오경”(KTEE)을 주제로 한 새로운 수요일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7 제직회/기획위원회 Board Meeting/Planning Meeting

오늘 예배와 친교 후에는 제직회/기획위원회가 사무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목장은 쉽니다.

### 8 캘린더 Calendar

- 주간새벽기도(화-목, 6:00am)
- 이번주 금요찬양기도 모임 없음(금, 7:30pm)
- 이번주 토요조찬기도 없음 (토, 7am)
- 어린이 가족 캠프(7월26-27일 금-토, 빅베어 수양관)
- 가을 부흥회(10월4-6일, 금요일저녁, 토요일아침, 토요일저녁, 주일낮)

### 9 기도 섬김이 Leaders in Prayer

예배기도 7/28 허지영 집사 8/4 오병국 집사 8/11 한신옥 전도사  
친교기도 7/28 김창웅 집사 8/4 고경희 권사 8/11 함진옥 집사

### 10 친교 섬김이 Fellowship Meal Prep

7/28 김가등 성도 김영순 성도 8/4 목장별 맛 대결 8/11 백종희 권사  
8/18 신혜숙 8/25 이조앤 사모 한신옥 전도사 9/01 교 회

# 우리교회 이모저모 Prayers & Etc.

봉헌하신 분들

2010년 7월 14일

|       |   |
|-------|---|
| 십 일 조 | 고광원 고경희 김기무 김미란<br>김창희 노은실 신혜숙 오병국<br>고 은 이보람                                   |
| 감사헌금  | 고한성 백종희 김다인 백복녀<br>백연희 백선희 이문구 이은숙<br>이봉하 이조앤<br>박길환 김숙희(입주)                    |
| 주일헌금  | 김미란 김수홍 김정민 권새미<br>김희숙 남병숙 무 명 박길환<br>김숙희 윤재호 이광숙 이명조<br>최진길 한순진 한신옥 함용선<br>황동필 |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이 바칠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우리가 주께 바쳤을 뿐입니다.  
(역대하 29:14)



기도 제목

- 1 온 교우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한해가 되도록
- 2 개인과 가정의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 3 전도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해가 되도록
- 4 주일학교와 학생부의 부흥을 위하여
- 5 한순진 목사님의 KTEE사역을 위하여
- 6 162개 세계 지역에서 섬기고 있는 나사렛 선교사들과 다른 모든 선교사들을 위하여
- 7 이은덕 선교사(필리핀), 이흥기 선교사(멕시코), 전예인 목사(거리의 교회) 사역을 위하여
- 8 미주 한인나사렛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 9 조국과 미국의 안녕과 영적 부흥을 위하여

집회 안내

증보기도회 주일 오전 10시 20분  
주일 예배 오전 11시  
어린이 주일예배 오전 11시  
학생부 주일예배 오전 11시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15분  
경배 찬양 준비 오후 1시 15분  
수요 TEE 성경공부 오후 7시30분  
새벽 화-목 오전6시 토 오전 7시  
금요 찬양 집회 금 오후 7시 30분

TEE는 신앙에 눈을 뜨게 합니다.  
TEE는 성경에 눈을 뜨게 합니다.  
TEE는 사역에 눈을 뜨게 합니다.

*Crumbs for Life*

*Grace Avoidance*

Everything they do is done for men to see... they love the place of honor at banquets and the most important seats in the synagogues: they love to be greeted in the marketplaces and to have men call them 'Rabbi.'

Jesus' critique centered on what legalism does to the law-keeper: it fosters feelings of pride and competition. Instead of getting on with the task of creating a just society that would shine as light to the Gentiles, the Pharisees narrowed their vision and began competing with each other. Caught up in trying to impress each other with spiritual calisthenics, they lost contact with the real enemy, as well as with the rest of the world. "From silly devotions and sour-faced saints, spare us, O Lord," prayed Teresa of Avila.

As a recovering legalist, I have to remind myself that for all their strictness the Pharisees did not seem to resent the obligations of the law.

- Philip Yancy -